

독특한 경영철학으로 만들어낸 문화공간

합리적 경영으로 내실 기하는 광주 '나라서적'

광주는 조용하다. 인구 150만의 '적합시'라 하지만, 또한 전남대·조선대·호남대 등이 모여있는 '젊은' 도시라 하지만 옷가게와 유흥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시내중심가 일부를 제외하면 고즈넉하기조차 하다.

그런데 광주에 어느 정도의 규모와 시설을 갖춘 서점이 200여군데나 된다는 사실이 바로 이 '조용함'의 원인을 설명해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더불어 광주 각 지역의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도서의 종류가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광주'의 특성을 말해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충장로에 들어섰다.

'나라서적'은 "광주에서 가장 비싼 땅에 있다"는 말이 증명하듯 충장로와 금남로, 학생회관을 잇는 '요새'이자 '금싸라기' 땅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1층에서 3층까지의 총매장면적 160평으로 광주 제일의 대형서점의 면모를 갖춘 나라서적은 각각 일반교양도서와 참고서, 전문도서, 외국·정부간행물 코너로 총별 매장구분을 해놓고 있는데, 4층의 창고까지 합치면 220여평에 이른다.

77년 지금의 4층건물을 구입하여 1층만으로 개업을 했을 당시, 이 건물은 다방·사진관·기원 등이 입주해있는 그야말로 "드나드는 사람만 많은 듯대기시장 같았다"고 한다. 그러던 것을 차츰 서점으로 '용도변경'을 시도한 것에 대해, 진영수 사장(45)은 "일종의 사명의 식이었다"고 담담히 말한다.

올해로 서점경영 13년째를 맞는 그는, 원래 화학도로서 통신전문대의 강의를 맡곤 했던

'학자'이다. 선친의 업을 이어 '사업'을 한다는 것이 결국 서점경영으로 귀착된 데에는 그의 이런 경력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사실 이윤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상당한 모험을 한 셈입니다. 더구나 지방도시라는 한계와 독서층에 대한 정보도 미흡했구요. 그러나 '제대로 된' 서점을 하나 경영한다는 데서 오는 자부심은 다른 사업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보다 훨씬 의미있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지역문화발전의 기초라는 서점의 역할에 대해 "그것은 서점경영의 힘든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결과이지, 서점만 차리면 당연히 돌아오는 '훈장'은 아니"라고 말하는 그는, 그렇기 때문에 거창한 사업사회이나 전시용 행사에는 관심이 없다. 대신 독특한 경영철학으로 내실을 기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자율적인 직원관리방식.

얼핏 보기에도 부드럽고 생기넘치는 매장직원들은 나라서적의 지역적인 잇점-좋은 목-이외의 커다란 '誘因'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위의 평가를 받고 있다. 21명의 직원들은 스스로 근무시간을 정해 교대로 근무하는 한편, 매장·손님관리에 있어 '상향식' 의사전달 체제를 정착시켜 놓았다. 여기에 진사장은 15명정도의 아르바이트생을 채용, 학생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학비부담까지 덜어주고 있다.

또한 책구입에 부담을 느끼는 일반학생들을 위해 '무료독서'를 할지라도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게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매장 한쪽에 작은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있을



나라서적의 일반도서매장.

정도이다. 작년과 제작년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던 구정가 도서판매도 이러한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한편 현재 서점의 거의 모든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재학 부장이 말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체계적인 도서분류방식이다. 서울의 대형서점이나 주변서점들과 비교하면서 수시로 매장 도서를 점검하는 한편 신간의 내용파악에까지도 꼼꼼히 신경을 쓴다는 것. 특히 2층의 외국서적 코너는 그 양이나 내용면에 있어서도 수준급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설면에 있어서도 창고와 연결된 도서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등 시설의 합리화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제 단순히 '중앙'에서 책을 주문해 독자가 요구하는 책을 내주는 식의 소극적인 서점경영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말하는 진사장은, 실제

로 지방의 대형서점들은 나름대로 지역특성에 맞는 경영방식을 체득해가고 있다고 한다.

"특히 저희 광주지역은 급속히 독서인구가 늘어남과 동시에 고른 독자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서점의 위치가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 사회과학도서의 경우 대학가서점과 비교해 판매량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진사장은 3년전 매장확장계획을 포기해야만 했던 '좌절'을 경험하기도 했다. 서점의 한정된 매출액으로 욕심만큼의 매장을 더 확보하기란 역부족이었던 것. 가장 손님이 많은 1층 매장을 볼 때마다 그는 안타깝기만 하다고 한다. 매장을 좀더 세분해서 '책방'이 아닌 책을 통한 광주의 '목소리'를 만드는데 중요한 몫을 하고 싶다는 것이다.

— 정소연 기자

한국의 출판계가 인정한 편집학교

미감 8월 11일
개강 8월 13일



편집을 소설보다 재미있게 가르치는 덕택에, 호기심으로 입학해서 전문인이 되어 나가는 곳. 취미가 직업이 되는 편집자의 '끼'를 소중히 생각하는 곳. 감성을 편집에 싣고, 문화의 힘을 믿는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편집을 아는 사람이 교제에도 능숙하듯 수료생들의 인간관계도 베스트셀러! 그래서 취업률도 자타가 인정하는 '95%'입니다. — 본 센터 수료생을 채용해 주신 출판·편집계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출판·잡지·사보·신문사 취업대비

수료생들의 취업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수료시기를 놓치시면 인력채용이 원활치 못하오니 지금 곧 문의하십시오. (본 센터 D·M·발송물 참조)

엘리트편집인 전문양성 교육기관
한국편집디자인센터

代) 812-1715-6 Fax 814-3387
노량진전철역 앞